

#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1995. 11.

申 相 振(國際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 目 次 -

I. 背 景 .....	1
II. 主要 議題와 成果 .....	3
1.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維持 .....	3
2. 地域 新秩序 構築 過程에서의 協力 .....	5
3. 經濟交流·協力 擴大 .....	6
III. 中國의 對南北韓關係 展望 .....	8
1. 韓·中關係 .....	8
2. 北·中關係 .....	9
IV. 統一環境에 미칠 影響 .....	12
1. 東北亞 情勢에 미칠 影響 .....	12
2.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 .....	13
V. 韓國의 考慮事項 .....	15
1. 未來指向의 觀點에서 對中政策 推進 .....	15
2. 對中 安保協力 추진시 신중한 자세 堅持 .....	16
3. 對中 接近政策 추진  목표의 多元化 .....	17
4. 中國카드 活用方案 摸索 .....	18
5. 中國의 대내외 政策變化  가능성에 對備 .....	19

## I. 背 景

-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1992. 9; 1994. 3)하였으며, 중국측에서도 李鵬 총리(1994. 10)와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1995. 4)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음.
  
- 경제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국(홍콩과 대만을 제외할 경우는 3대 교역국)과 6대 투자국으로서 중국의 중요한 경제교류·협력 대상으로 부상되었음.
  - 1995년 9월까지 한·중간 교역액이 119억달러(1994년 총 116억 달러)로 증대되고, 한국의 대중 투자가 16억 2천만 달러로 확대되는 등 양국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sup>1)</sup>
  -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일본의 대중 경제진출을 자극하고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태경제협력체와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경제기구내에서의 활동 및 대유럽 시장진출 문제와 관련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경제력 신장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바, 중국은 한국과 정치·외교관계

---

1) 한국의 총교역에서 대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2년 4%, 1994년 5.9%, 1995년 6.2%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

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신 동북아질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음.

- 특히 최근 중국의 대미·일 관계악화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적극화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과 정치·안보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도록 유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sup>2)</sup>

- 또한 중국은 대북한 관계개선 모색 등 경제력을 이용한 대만의 외교영역 확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대만문제에 대한 한국의 확답을 요구하고자 하였음.

○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해 수재피해 복구 명목으로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최우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초청하여 한반도문제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조정하는 한편, 북경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기념행사에 최고 지도자들을 대거 참석시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시킴으로써 江澤民 방한(1995. 11. 13-17)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시켰음.

- 즉, 최근 중국과 북한간 관계회복 움직임도 江澤民의 방한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 중국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시작된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 대외정책 목표로 추진해 왔음.

## II. 主要 議題와 成果

-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쌍무 우호협력관계 심화·확대 방안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는 바, 금번 江澤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 안보 및 경제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임.

### 1.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維持

- 김영삼 대통령과 江澤民 주석간 정상회담(11. 14)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는 남북한관계 개선 및 동북아 지역질서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중국은 1990년대 최대 국가정책 목표를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 신장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정세의 안정을 희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국면이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음.
  - 특히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이해에 따른 것임.

○ 또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문제가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하에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음.

- 이와 관련,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의해서가 아닌 남북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sup>3)</sup>

- 江澤民 주석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 정전체제가 유효하며, 평화체제 전환이 남북한과 미, 중 등 관련 당사국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음.<sup>4)</sup>

○ 한편, 중국은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음.

- 江澤民 주석은 방한 직전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11. 10)에서

---

3) 중국이 한반도 정전체제 전환 등 한반도 문제가 외세의 개입없이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4) 중국은 이미 1994년 李鵬 총리 방한시(1994. 10. 31 - 11. 4)에도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음. 한편, 중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기 때문임.

“중·북간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의 목적이 중·북간 각 분야에 걸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특정 영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음.

-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대변인 陳健도 기자회견(11. 14)을 통해 “중·북간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은 파병조약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2. 地域 新秩序 構築 過程에서의 協力

- 김영삼 대통령과 江澤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과거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임을 합의하였음.
  - 김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밝히고, 한·중 및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음.
  - 江澤民 주석도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일본내 군국주의 세력 대두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음.
- 한편, 江澤民 주석이 국회연설시(11. 14) 중국이 군사력 증강정책을 결코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패권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도 한국의 대중 안보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강화되고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적극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증진정책을 중시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미·일이 북한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적극화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여 왔음.

### 3. 經濟交流·協力 擴大

- 한·중 정상은 중형항공기 공동 개발 착수와 산동성 원자력발전소 건설 협력 및 러시아 가스田 개발에 공동 진출 등을 약속함으로써 이미 산업협력 단계로 진입된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한·중 양국은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시 이미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자동차, 전전자 교환기, 항공기, 고화질 텔레비전 등 4개 분야에 걸쳐 산업협력을 추진해 왔음.
- 중형 항공기 개발과 산동성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국이 가

장 중시하는 사업인 바, 금번 한·중간 산업협력 약속은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한·중 양국이 山東省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국형 원전의 최초 수출, 대중 원전 건설시장 선점 및 대북 경수로 지원에 유리한 여건 제공 등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음.<sup>5)</sup>

○ 또한 江澤民 주석은 중국의 9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96-2000년)과 2010년까지 장기 발전계획에 한국이 적극 참여·투자하도록 요구하였는 바,<sup>6)</sup> 향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아울러 江澤民 주석은 경제관료들을 대거 대동하고 삼성반도체(11. 15)와 현대자동차 공장(11. 16) 등을 시찰하고, 문화 유적지인 경주를 방문(11. 16)하였는 바, 금번 江澤民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간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폭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양국간 신뢰관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

5) 한·중 양국간 통산부장관 회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중국 산둥성에 1천 메가와 트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음.

6) 2010년까지 중국이 추진하게 될 경제개발계획안은 1995년 9월 14기 5중전회에서 당의 공식 정책지침으로 확정·통과되었음. “中共關於制定九五計劃和二〇一〇年遠景目標的建議,” 「文匯報」, 1995. 10. 5.

### Ⅲ. 中國의 對南北韓關係 展望

#### 1. 韓·中關係

○ 금번 江澤民의 한국방문은 한국(대한민국)과 중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한·중관계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국교수립 이후 한국의 대통령이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반면,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한·중관계가 대등한 차원으로 발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江澤民 주석의 방한이 김일성 사후 북한정세가 불투명하고 남북한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금번 한·중 정삼회담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북한 지지성향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江澤民 주석의 방한이 구소련 붕괴이후 동북아 신질서 구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관계는 단

순히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파트너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11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참석직전 한국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江澤民 주석의 방한은 국제기구에서 한·중간 협력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최근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으로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지역의 유엔안보리 이사국이 되었다는 점도 향후 한·중간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2. 北·中關係

-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이념과 제도적 요인에 입각해서 전개되기 보다는 독립자주원칙에 의거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 중국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록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보다 부담이 되는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북·중관계는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중국과 북한은 현재 혁명세대 지도자들이 사망하거나 정치일선에서 퇴진함으로써 세대교체를 맞고 있는 바, 북·중 양국

7)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익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는데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Banning Garret,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39-541 참조.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는 모든 가치의 척도가 공산주의 이념 보다 경제적 부에 의해 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북·중 간에는 이념적 괴리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그러나 강택민 주석의 한국방문시 북·중 군사동맹조약 개폐문제, 안승운목사 납치사건, 심양 총영사관 설치문제 등 민감한 정치·안보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인하여 북한을 「脣齒關係」 또는 자신의 안보유지를 위한 「緩衝地帶」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江澤民의 방한이 북·중간 특수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통일된 이후 1년만에 구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김정일정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해 왔음.

- 중국이 한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남북한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

는 것도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중요성에 기인하고 있음.

◦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질서개편 움직임도 중국과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경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중국은 북한과 미·일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지·지원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갖고 있음.

-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지위를 확보하고 한·중간 관계 진전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음.

## IV. 統一環境에 미칠 影響

### 1. 東北亞 情勢에 미칠 影響

-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방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이 적극화 되고 있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등 강대국들이 동북아 신질서 구축과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 변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江澤民의 방한이후 한·중간 정치·안보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될 경우, 북한에 대한 미·일의 진출정책이 적극화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江澤民 주석의 방한이 북·중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금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질서에 심각한 지각 변동이 예상되지는 않음.
  -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변환경 유지·조성을 대외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江澤民 주석의 방한을 통해 동북아 정세 변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
  - 미국과 일본도 한국이 미·일과의 협력관계를 해치면서까지 대

중 접근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

## 2.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

○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대한 중국 최고지도자의 협력 약속은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임.

- 반면,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 보다 남북한간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중국이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는 바, 이는 남북대화 재개 및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미국과 일본 등 타 강대국이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



- 江澤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 또한 江澤民 주석과 陳健 외교부 대변인이 “중·북 군사동맹조약이 특정 영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파병조약이 아니다”라고 천명하였는 바, 금번 江澤民의 방한은 북한의 대남 전면전 도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금번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 및 남북한관계 진전이 오히려 위협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북한에게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 수용을 촉구하기 어려웠을 것임.

## V. 韓國의 考慮事項

### 1. 未來指向的 觀點에서 對中政策 推進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일정 정도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관계 진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 바,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북한과의 특수관계 단절 등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제시할 경우, 불필요한 대가지불을 강요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심화시켜 남북한 주도에 의한 남북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우리 정부는 북·중간 안보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대신 우리도 미·일과 협력관계를 단절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중국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있음.
  
- 아울러 우리 정부는 동북아지역 질서 변화 및 한반도 통일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통일이후 한·중간에는 조선족문제, 영토문제, 주한 미군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중국과 광범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2. 對中 安保協力 추진시 신중한 자세 堅持

- 중국의 군부는 북한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군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바, 우리 정부는 중국 군부와의 교류·접촉을 확대해야 할 것임.
  - 鄧小平 사후 예상되는 중국내 정치변동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군부와의 다각적인 교류가 필요함.
  - 특히 최근 북한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 군사교류 증대는 한반도 안정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또한 중국이 최근들어 핵실험을 실시하고 황해상에서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 유의,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군사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한·중 쌍무 안보협력은 군 지도부 접촉·교류 등 기초적 수준에 국한시키고 다자 안보협력의 틀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현 동북아질서와 향후 동북아에서 전개될 지역질서 변화상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중 안보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3. 對中 接近政策 추진 목표의 多元化

○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대중 접근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 국한시켜 온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대중정책 추진의 목표를 다원화 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통일한국이 중국의 경제 및 안보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게 적극 인식시킴으로써 남북통일 과정에 중국이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필요

가 있음.

-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우리 정부는 흡수통일에 따르는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인식시켜야 할 것임.

#### 4. 中國카드 活用方案 摸索

- 동북아질서 변화과정에서 북한 개방유도, 남북한관계 진전 모색 및 한국의 외교입지 강화 등을 위해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도록 설득해 왔음.
  - 또한 중국은 한반도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간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견지해 왔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에게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 남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대미·일 외교정책 전개시 중국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음.<sup>8)</sup>

---

8)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미, 한·일협력의 기본 틀을 깨뜨리면서까지 중국을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5. 中國의 대내외 政策變化 가능성에 對備

○ 중국은 현재 권력승계의 정치적 과도기에 처해있는 바, 향후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문제, 안정과 발전간의 조화문제, 관료 부정부패문제 및 지도부간 권력투쟁 가능성 등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이와 관련, 최근 중국에서는 중앙의 권한 강화와 빈부격차 해소 등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sup>9)</sup>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 우리 정부는 鄧小平 사후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상황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대미·일관계 변화와 중·대만관계 변화 및 홍콩주권 반환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정책 변화 방향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중국내 유력 지도자들과의 접촉·교류를 확대하고,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중·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9) Steven Mufson, "Challenges to Deng Flow Into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14, 1995.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91-11 在野統一案 研究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 II )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  
亞 秩序·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關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對外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與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  
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統一文化 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統一情勢分析 95-08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11月 日

發行日 1995年 11月 日

---